



광주첨단과학기술산업단지(이하 첨단산업단지)에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잇따라 조성되면서 소프트웨어와 AI 등 IT 기업들의 입주가 증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다. 사진은 산단에 조성된 지식산업센터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IT·소프트웨어·AI 기업 입주 급증 광주첨단산단 첨단화 속도 붙었다

입주기업 2021년 말 1695개사서
올 7월 1956개사... 15.40% 늘어
지식산업센터 주도 산업구조 재편
젊은층 근로자 늘자 상권도 변화
20대 인기 카페·주점 '핫플'로

광주첨단과학기술산업단지(이하 첨단산업단지)가 줄어들고 있다. 올해 들어 IT 관련 기업들의 입주가 급증하면서 '산업단지=공장 밀집지역'이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다. IT 관련 기업들이 첨단산단에 새롭게 동지를 틀면서 젊은 연령의 근로자들이 늘고 있고, 덩달아 인근 상가는 20대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는 카페와 주점 등 이른바 '핫플'(핫플레이스)이 조성되면서 산단 주변 상권 역시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 1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첨단산단 내 입주 기업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동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업종도 변화하고 있다. 우선 첨단산단 내 입주기업은 2020년 말 1506개사에서 2021년 말 1695개사로 12.55% 증가한 것

에 이어 올해 7월 말 기준 1956개사로 전년 대비 15.40% 늘었다. 산업단지공단은 올 연말까지 첨단산단 입주기업이 2530개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대비 무려 49.26%가 증가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입주 업종의 변화다. 지난해 451개사이던 전기·전자 업종은 올해 470개로 4.21%, 기계는 154개사에서 156개사로 1.30% 증가한 반면, 비제조업은 1042개사에서 1280개사로 22.84% 늘었다. 첨단산단 내 주요 제조업인 전기·전자와 기계, 석유화학 이외 IT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업이 크게 늘면서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는 게 산업단지공단의 설명이다. 이처럼 첨단산단 내 IT 관련 기업이 급증하는 등 산업구조가 변화를 맞은 것은 최근 잇따라 조성되고 있는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첨단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총 13건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7건이 준공을 완료했고, 5건은 건축 중이다. 나머지 1건도 곧 착공에 들어간다.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계약을 한 기업 1230개사

중 IT 등 정보통신업종과 비제조업은 89.02% 수준인 1095개사에 달한다.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의 완공이 속속 이뤄지면 첨단산단에 입주하는 IT 관련 기업들은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과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업종, 이밖에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다. 기존 아파트형 공장인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다. IT와 소프트웨어, AI 등 관련 기업의 특성상 젊은 연령층의 종사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산단 내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다. 평일 점심시간이면 작업복 대신 캐주얼한 차림의 젊은 직장인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변변한 카페와 식당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산단 내 상가 역시 젊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인기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다양한 외식업종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첨단산단에 젊은 연령대의 직장인이 몰리면서 광주지역 주요 상권의 흐름 변화도 감지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광주 핫플'로 유명한 카페와 주점, 음식점 등이 첨단산단 주변에 조성되면서 광주의 20대들이 첨단으로 몰리고 있어서이다. '거리가 멀다', '교통편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외면받던 첨단지구 상권이 이제는 '일부러 찾아가는' 상권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게 지역 외식업계의 분석이다. 박진석 현대외식연구소 이사는 "최근 첨단지구에 전국에서 유명한 음식점 브랜드들이 잇달아 문을 열고 젊은층 고객의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젊은층의 유입이 많은 첨단지구가 광주의 주요 상권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



◀'베로니카'
1945년경·유채·50x36cm
풍피두센터 소장



조르주 루오

전남도립미술관·광주일보 주최
10월 6일 ~ 2023년 1월 29일

20세기 현대미술의 거장 조르주 루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은 광주일보는 전남도립미술관과 함께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전을 개최합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조르주 루오(1871-1958)는 특유의 격렬하고 자유분방한 선과 깊은 색상의 표현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구축해 나간 작가입니다. 20세기 유일한 종교 화가로 불리는 그는 성서나 종교적인 주제의 작품 뿐 아니라 사회의 약자였던 광대, 극에서 등 삶과 전쟁의 비극속에 고통받는 인간들의 모습을 형상화해왔습니다.

모두 6부로 나누어 진행되는 전시에서는 대표작 '미제레레(Miserere)'를 비롯해 '오렌지가 있는 정물' 등 프랑스 국립 풍피두 센터와 조르주 루오 재단에서 엄선한 유화, 판화 등 2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또 루오가 사용했던 붓과 팔레트 등 유품도 함께 전시되며 루오재단 회장 등이 참여하는 국제세미나도 열립니다. 특히 연계전시 '조르주 루오와 한국미술' 전에서는 이종삼·구본웅·손상기 등 루오의 화풍이나 예술정신에 영향을 받은 작가 23명의 작품 50여점도 함께 선보입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광주일보 창간 70주년

- 일시 : 2022년 10월6일(목)~2023년 1월29일(일)
- 장소 : 전남도립미술관
- 주최 : 전남도립미술관, 광주일보, KBS광주방송총국,
- 주관 : KBS BUSINESS, 두미르
- 협력 : 조르주 루오 재단, 프랑스 국립 풍피두 센터, 팔랑크 갤러리
- 후원 : 주한프랑스대사관

光州日報社 · 전남도립미술관

- ▶ 6면: 쌀값 폭락 한숨 농민들 얘기 들어보니
- ▶ 18면: 손흥민 13분만에 골·골·골...해트트릭
- ▶ 22면: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경주 옥산서원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한경, 광주 인쇄 시대 개막!
광주에서도 서울과 똑같은
생생한 한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1577-5454
안국경제 압도적 1등 한국경제신문 MOBILE 한경

Mercedes-Benz Certified

이보다 쉬울 수 없다.
가장 손쉽게 만나는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 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온라인샵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결제 시스템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중대
- 국내 수입처 최다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 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

